

陶山十二曲跋*

이 도산곡은 陶山老人이 지은 것이다. 노인이 이 곡을 지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 동방의 가곡은 대개 말할 수 없이 음탕한 것이 많다. 翰林別曲¹⁾과 같은 유는 文人의 입에서 나왔으나 矜豪放蕩하고 겸하여 褻慢戲狎하니 더욱 군자가 숭상할 바 아니다. 오직 근세에 李麓²⁾의 六歌라는 것이 세상에서 성하게 전하고 있으나, 오히려 저것이 이것보다는 나으나 역시 그 玩世不恭한 뜻이 있고 溫柔敦厚의 실상이 적은 것이 애석하다.

이 노인은 본디 音律을 알지 못하나 오히려 세속의 음악이 듣기 싫은 것은 안다. 한가히 있으며 병을 요양하는 여가에 무릇 情性에 느낌이 있는 것은 매양 시를 발표하나 오늘날의 시는 예전의 시와 다르니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할 수는 없다. 만일 노래하려고 하면 반드시 俚俗의 말을 가지고 엮어야 한다. 대개 國俗의 음절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대략 李麓의 노래를 본받아 도산 6곡을 들을 지었다. 그 하나는 뜻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학문을 말하였는데, 아이들로 하여금 조석으로 익히어 노래하게 하고 의자에 비껴서 들으려고

* 퇴계학연구원, 「退溪學 譯註叢書」 제10권(1996)에서 발췌·수록한 것임

- 1) 翰林別曲 : 지봉유설에, “우리나라 樂府에 한림별곡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려 때 翰林諸儒가 지은 것이다.” 하였다. 退溪先生文集攷證 卷7.
- 2) 李麓 : 본관은 경주, 호는 藏六堂. 박팽년의 외손이자 再思堂 원의 아우. 眉叟(許穆)의 藏六堂六歌識에, “연산군 갑자년에 재사당이 화를 입자, 형제간이란 이유로 연좌되었다. 연산군이 폐위된 뒤에는 이미 은둔하고 세상에 나가지 않았으며, 六歌가 있어 세상에 전한다. 이선생(退溪)이 ‘너무 오만하다. 그러나 遺世放迹했다.’ 하였으니, 그 말이 맞다. 또한 죽히 魁梧傑出하고 高蹈拔俗하여 冷然히 기영(箕穎 :堯임금 때에 隱士 許由가 箕算의 아래, 潁水의 가에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곧 隱者를 뜻함)의 풍도가 있었음을 상상해 볼 수 있다.” 하였다. 退溪先生文集攷證 卷7.

하였으며,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하고 스스로 춤추게 하니, 거의鄙吝을 蕩滌하여 感發하고 融通할 수 있거니와 따라서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됨이 없지 않다.

그런데 나의 처신이 매우 까다로우니, 이와 같은 한가한 일이 혹시 시끄러운 꼬투리를 야기할지 알 수 없다. 또한 이 가곡이 腔調³⁾에 들어 음절을 고르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믿지 못하겠다. 우선 하나를 적어서 상자 속에 간직해놓고 수시로 꺼내서 음미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또 후일 보는 자의 취사선택을 기다린다.

가정 44년 乙丑 3월 16일에 山老는 씀.

3) 腔調 : 歌調를 腔, 樂律을 調라 하니, 樂曲의 聲律을 통칭하여 강조라 한다.